

민수: “누구는 개고생을 하면서 도망 다니는데
누구는 아예 작업장까지 차리는구나.

(분위기가 바뀌며)이러면 저도 그냥 못지나가죠. 나는 감수할 생각으로 직접 오기라도 했지.
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뭘갈 얻으려고 하는건 진짜 너무한거 아냐?
실상이 이랬으면 나도 안했죠. 이렇게 더러운 줄 알았으면 나도 시작도 안했지!
재현이 그새끼도 똑같아. 앞에서는 안그런척. 바른척. 당신들 같은 새끼들이 판을 치니까...”

재현: “나라고 뭐 다 아는줄 아냐... 아니 근데 이거 맞아?
진짜 너 걸리더라도 내 이름 대면 안 된다 어?”

(다 들리게 혼잣말 하며)“OT때 똥끼 있는거 진작에 알아봤어야 됐는데...”

“내가 봤을땐 넌 미친놈이 맞아. 어떤 대학생이 지 졸업 제 때 하겠다고
그 시간에 학교를 가?”

“...아잇 민수야.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다음 학기부터
정식으로 너 도와줄테니까 고대로 다시 나오자. 응? 야 박민수!”

재성: (격양된 말투로)“뒤에서 몸 사리면서 남한테 시키는거나,
뻘히 안좋은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직접하는거나. 뭐가 다른니까?
살인 저지른다고 절도죄가 없어져요?
애당초에 우리도 그런 새끼들 없었으면 이렇게 판이 커지거나 했겠어요?”